

화제의 책

큰 죽음의 법신

석지명 지음

업장 소멸·열반의 길 등 쉽게 해설



불교방송 '불교공부' 강의 내용을 묶은 열반경 강의록. 열반경의 핵심은 법신상주(法身常住) 실유불성(悉有佛性) 즉, 법신이나 불성이 부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 등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길을 닦고 부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다.

《큰 죽음의 법신》은 열반경의 이같은 핵심사상을 경전을 토대로 밝히는 한편 지구촌이식의 강의방법을 탈피, 우리들의 삶속에서 비유를 찾아 '법신상주 실유불성'의 가르침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열반경의 종류' '열반 전후 과정의 사실적 묘사' 등 9개장과 120개의 이야기들로 구성돼 경전 강의가 갖는 지루함과 난해한 근엄함을 최소화해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저자는, 업으로 된 나를 과감히 벗어버리는 것을 '큰 죽음'이라 하고 설명한다. <불교시대사, 9천5백원>

42장경을 내용에 따라 '무(無)만이 존재한다' '수행을 넘어선 수행' '영적 깨달음' 등 11개 항목으로 나눠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한 경전강의서. 라즈니쉬가 강의한 <42장경>의 텍스트로 사용된 42장은 인도승려들이 중국인들에게 부처님과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시편집 형식의 경전이다.



42장경

라즈니쉬 강의

수행자들의 장애 극복하는 지혜

이름 그대로 42개의 장으로 나누어 불법의 요지를 설명했다. 42장경의 중심사상은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 열반에 이룬다는 것. 라즈니쉬는 이 가르침을 적절한 예화와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을 얻은 지혜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구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술한 장애물과 그 장애물을 뛰어 넘는 '초월의 예술'을 설명한다. 각 장마다 충실한 역주(譯註)를 달아 불교에 전혀 낯선 독자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황광우·이경옥 옮김. <성하, 7천5백원>

들이 빠지기 쉬운 술한 장애물과 그 장애물을 뛰어 넘는 '초월의 예술'을 설명한다. 각 장마다 충실한 역주(譯註)를 달아 불교에 전혀 낯선 독자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황광우·이경옥 옮김. <성하, 7천5백원>

'조선 불교 통사' 한글본 나온다

<삼국유사> 이래 한국 불교사 서술의 불우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조선 불교 통사> 전3권이 한글로 번역, 출판된다.



윤세스님

불교영상회보사(대표 최석환)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년차적으로 본문 10권, 원문·역인 2권으로 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은

할 문헌자료가 빈약한 현실에서 이 책의 번역·출판은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권 '조선 불교 통사' 화시처(佛

윤세스님 번역...12권중 4권 출간

건국대 사학과교수와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윤세스님이 하며, 이미 번역작업에 들어가 올해안에 4권을 펴낼 계획이다. <조선 불교 통사>는 근대의 불교학자 이능화(1868~1943)의 저작으로, 모두 2천3백여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우리나라 불교사를 총정리하고 있다.

화(時處)'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역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총독 부시대대로 나누어 기술했다. 특히 상권에는 '조선인이 설립한 사찰·선원 및 승니수표'와 '조선사찰 선교양종 30사 및 그 소속 말사'를 수록해 근대 한국 불교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했다.

1918년 신문관에서 발행된 <조선 불교 통사>는 자료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완역은 없었으며, 지난 80년 박영사에서 상권만 이 번역되어 있었다. 영인본은 보령각 경회총판사 중앙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펴냈다. 한국 불교사를 서술

중권 '삼보원류(三寶源流)'는 붓다가 멸도한 후 행해진 결집과 경론의 번역, 장소(章疏)의 저술 및 여러 유파의 생성과 전승을 서술했다. 하권 '이백품제(二百品類)'는 한국 불교에 관한 온갖 항목을 해설한 것으로, 상권에 나온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including '삶에서 깨어나기', '심경경 강의', '신 100문100답'.

구입문의: (02)737-0695

삶에서 깨어나기

탁낙한 지음

호흡 명상 통한 마음계발 지침서

여러가지 일화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의 호흡명상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삶에서 깨어나기》는 저자인 탁낙한스님이 망명지인 프랑스에서 베트남청년사회봉사단의 주요강부였던 황 형제와 그의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묶은 것으로, 원제는 <기적의 관(觀)명상>.

이책에서 탁낙한은 전쟁의 암울한 시기에 놓여있는 그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깨어있는 마음을 계발,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는 근본수행을 계율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책의 뒷부분 '금강경'은

밀교를 일반적으로 다신교적 민속불교로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밀교가 지난 삼정체와 삼오한 심비주의(深秘主義)에 대한 진지한 이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 불교의 밀교적 특색>은 이같은 인식을 일소하는 한국 불교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서이다. 저자는 이책에서 한국 불교의 저변에는 밀교적



한국 불교의 밀교적 특색

홍윤식 지음

밀교에 대한 바른 이해 자료제시

요소가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준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선종적 전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신앙 의례에서는 밀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특히 불국사와 석굴

암의 건축 양식에서 밀교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불교의례의 내용구성이 대부분 밀교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삼국유사> <고려사> 그리고 조선 시대에 간행된 전전집과 각종 의례집을 근거로 밝혔다. <안다라, 3천5백원>

새로나온 책

▲사명대사(권상로 지음)=조선왕조실록 사명대사 열전 등에 나타난 사명대사 관제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명대사 일대기. 부록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일본군의 개황을 실었다. <이화문화, 8천원>



▲대지관좌선법(천태지자 지음)=중국 천태지자대사의 '미하지관'을 번역한 것으로, 지관의 바른 수행을 실었다. 김두목 주석. <운주사, 8천원>

▲열반의 노래(김원환 지음)=성철 효종 마조 다구양 등 한국 중국 일본의 역대 큰 스님 90명이 남긴 임종계와 출가기를 원문과 함께 실고

해설을 붙였다. 저자는 조계종 수선회 부회장. <한아름, 8천원>

▲병원법당(동출 역음)=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학, 기도로 병을 극복한 이들의 신행수기와 환자들과의 신앙상담, 환우를 위한 기도방법, 부처님의 의료정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묶었다. <솔바람, 법보사>

현대 불교 구독신청 737-8881

명사추천



韓國近世禪家文學

근세에 해당하는 15~16세기는 불교적 이념이 성리학에 의하여 대체되는 사상사적 일대전환기였다. 이 시기의 불교문학은 그 나름의 제약을 불기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불적인 운량과 후妃의 흥현으로 불교의 맥이 아주 끊이지는 않았다. 공식적인 배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불교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불교문학은 종교 고유의 역동적 속성 때문에도 조선의 불교는 배불의 시련으로 험악히 좌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황 패 강 (한국대 명예교수)

이 시기는 우리 문화의 '수단'인 국자를 창안해 가진, 문화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또 탄압 속에서도 끊임 없이 자기 세계를 확립해간 불교문학이 주요한 논의거리를 제공해 준 시기이기도 하다. 과연 그와 같이 중요한 시기의 불교문학 내지 선가문학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는가 하면 거기에 회의가 없지 않다. 최근에

김시습·보우·휴정스님 작품에 나타난 禪사상 고찰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이 분야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영성한 연구중토 속에서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불교문학 특히 선가문학 연구에 관심을 경주해온 서규태씨의 학구적 노력은 소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서씨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묶어 <韓國近世禪家文學>이란 논저를 내놓았다. 이 책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본저는 김시습·보우·휴정스님 3인을 대상으로 삼아 근세 선가문학을 해명하고, 각자의 선가적 의식의 본질을 파헤쳤다. 그리하여 김시습을 '행유적불(行遊迹佛)', 보우를 '현실참여(現實參與)'와 역사의식(歷史意識)', 휴정을 '선가적 실천윤리' 면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각자의 문학사상으로 구현된 바를 실증적으로 해명하였다. 김시습은 '문학의 원류와

이들은 선시의 대가로서 김시습은 '이상과 묘의 추구', 보우는 '시사(詩思)와 선심의 문자'가 들어가 '시사와 세경의 형상화' '산가와 선심의 문자', 휴정은 '자연과 오도승'으로부터 '운수(雲水)와 성정의 수화(酬和)' '자연의 의미와 상징성' '창허한 금강산의 오도승' 등으로 파악하여 근세 선가문학의 문학사상사적 의의의 대강을 들춰냈다. 특히 휴정에 관하여는 선가문학을 심화, 발전시켜, 한국선가문학사에서 근세와 다음 시대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언필칭 '선(禪)'이요, '선문학(禪文學)'이라 할 때 '문자'의 학(學)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반 통상의 논리 이상에, 또 문자나 언설의 저편에서 자득 않아서는 안 될 의미가 있다. 그 선미를 찾아 옛 구도자인양 총(叢)과 필(林)을 해매보지하다.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 불교 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 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 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대로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 (26.5 x 36cm)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울컥려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重要내용

- 1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실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2 佛教繪畫: 한국 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3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4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5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6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7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 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 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737-0695 FAX: (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책세문화사 TEL: (02) 333-0051 FAX: (02) 338-7781